목포 부주산 일주도로 웰빙 공간으로 탈바꿈

산책로·건강 지압로 조성

목포 부주산 일주도로가 새로운 웰빙 공간으로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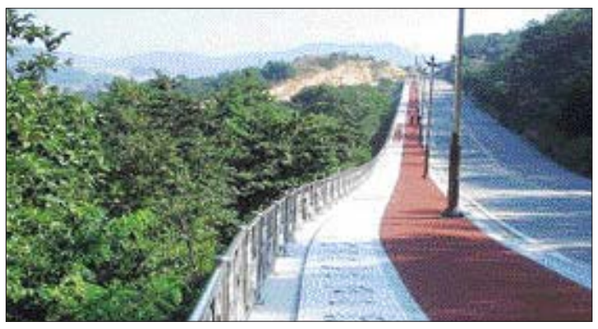
목포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레포츠 공간 확보를 위해 부주산 일주도로에 산책로와 건강 지압로를 설치했다. 〈사진〉

부주산 일주도로는 55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02년 완공됐지만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함께 안전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시는 21억 원을 투입, 최근 산책로 4㎞, 건강 지압로 3개소 315m를 완공했으며 가로등 118개도 설치해 새로운 웰빙 공간으로 조성했다.

한편 목포시는 인도 준공을 기념해 지난 19일 부주산 일주도로에서 시민걷기 대회를 열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항생제 안 쓰는 새우 양식법 개발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 바닥에 비닐 씌워 생산

운영비 절감·생산량 10배 증가… 어민 소득 기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새우를 출하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기술이 개발됐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안연구소는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연구 끝에 양식장 바닥에 비닐을 씌워 새우를 생산하는 초고밀도 양식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새로 개발된 양식기술은 양식장 바닥에 비닐을 씌워 유익세균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찌꺼기와 질소화합물 등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키게 된다. 이에따라 항생제나 화학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친환경 생산이 가능하고 기존 양식법에 비해 생산량도 최고 1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안연구소는 500㎡ 크기의 양식장 2곳에서 3개월간 새 기술로 새우를 양식한 결과 약 2.5t(2.5kg/㎡)을 생산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생산성 증대로 양식면적을 줄일 수 있고 인건비 등 운영비도 5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국내 양식새우 생산량의 약 65%를 점하고 있는 신안과 영광, 무안지역 어민들이 앞으로 항생제나 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웰빙 새우를 저렴한 비용에 생산할 수 있게 돼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시험 양식장 확대와 교육 등을 통하여 내년부터 새우양식 어민들에게 이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에서는 566ha의 양식장에서 새우 1천261t을 생산해 176억원의 판매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신안 '돈 먹는' 행정선 파워보트로 바꾼다

유류비·관리비 등 절약

2012년 위그선 5척 매입 추진

유류비 등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선이 속력이 빠르고 관리비도 적게 드는 파워보트로 대체된다.

신안군은 최근 행정선 3척 가운데 1척(전남 534호)을 매각하고 2척의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안군은 행정선 매각이 완료되면 관리비가 적게 들고 속력도 빠른 파워보트를 구입할 계획이다. 파워보트는 적은 인력으로도 작은 섬 등을 누비고 다닐 수 있어 효율적인 데다 연간 관리비도 5억 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군은 특히 바다 위를 떠다니는 위그선이 상용화될 오는 2012년에는 12~20인승 위그선 5척을 매입해 행정 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해양사고 오후 3~6시 가장 많다

전남 서남해안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는 오후 3시~6시, 원인별로는 기관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 2005년부터 지난달까지 완도와 해남 지역 해상에서 발생한 158건의 선박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후 3시부터 6시사이 발생건수가 44건(27.8%)으로 가장 많았다.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의 발생건수는 25건(15.9%)이었으며 오전 9시~정오 23건(14.6%), 오전 6시~9시 21건(13.3%) 순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4년간 선박사고 246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기관고장이 104건(4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진기 장애 44건(17.9%), 충돌 36건(14.6%) 등으로 나타났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평생 교육기관 가을 체육대회 평생 교육기관인 목포 제일중·고등학교(교장 김성복) 체육대회가 1천500여 명의 재학생과 동문, 교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9일 유달 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날 재학생과 동문들은 어깨동무하고 반환점 돌아오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해 결속을 다졌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51명에 3천만원 장학금

무안 승달장학회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가 '2007년도 하반기 장학금 3천200만원을 지급했다.

승달장학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고등학생 25명, 대학생 23명, 우수교사 3명 등 51명을 선발해 장학금과 격려금을 지급했다.

장학금 지급액은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생 100만원이며 우수 지도교사에게는 50만원의 격려금이 전달됐다.

무안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된 승달장학회는 현재 10억6천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목포 '멘토링' 등 교육사업 활발

목포시 교육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와 '멘토링 사업' 등 21가지 교육발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배움터 지킴이'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지난 달 말부터 본격 시작된 데 이어 수학능력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제 2기 논술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목포시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300명에게 사이버 강의를 듣도록 했고 11개 중학교에 사서직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폈다.

또 저소득층 자녀 510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30개 학교의 낡은 급식시설 개선 공사도 완료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새얼굴

"지도·교육 통해 해양사고 줄일 터"

김상수 목포해양심판원장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지도·교육을 통해 해양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김상수(56)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혁신과 성과관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출신인 김 원장은 광주고와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지난 1979년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목포해심 심판관, 동해심판 원장 등을 지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나주시	332-5544
광 양	792-8111	무 안	452-8535	나주군	332-7764
보 성	853-9700	해 남	534-5151	화 순	374-4423
순 천	746-8111	완 도	554-6677	장 성	392-7000
고 흥	833-9900	영 광	351-0055	담 양	383-8111
녹 동	842-2121	신 안	243-3758	영 암	473-2340
구 례	783-8111	진 도	543-0100	장 흥	863-8822
곡 성	362-8111	강 진	433-8355	광 산	944-0444
		함 평	324-8111		